



임실군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임실시장이 국가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는 경계사를 맞으면서 전국적인 문화관광형 명품시장으로 발돋움한다.

# 임실시장 문화관광형 '발돋움'

### 36억원 투입 주차장 확보 · 문화공연 광장 · 특산물 상설판매장 조성 등 추진

임실군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임실시장이 국가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는 경계사를 맞으면서 전국적인 문화관광형 명품시장으로 발돋움한다.

특히 주차장을 대폭 확대하고, 문화공연과 지역특산물 상설판매장이 함께 공존하는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리가 풍부한 다기능 공간으로 대대적인 변신을 꾀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추석명절 이전 개장을 목표로 임실시장 다기능 조성사업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지난 해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인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되는 것으로 총 36억원(국비18억원·도비5억원·군비13억원)이 투입된다.

사업방향은 △주차장 확보와 △문화공연 광장 조성, △지역특산물 상설판매장 및 향토음식판매장 마련 등 크게 세가지다.

우선 임실시장 주변의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80여 면의 주차장이 추가로 조성된다. 이에 따라 5일장이 열릴 때마다 주차 문제로 혼잡했던 주변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한편

시장 이용고객들의 불편과 안전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차장 내에 조성되는 문화광장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400여 평방미터에 문화광장을 조성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필봉농악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선사한다. 또한 지역특산품인 임실고추의 명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임실고추 판매장이 별도로 생기고, 대표 특산품인 임실치즈를 비롯한 유제품을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는 상설판매장도 마련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복지서비스 부적정 수급 방지 조사

### 31일까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외 11개 복지사업

남원시는 최근 변경된 공적자료를 반영하여 복지대상자의 자격 변동 및 복지급여액 변동 등이 이루어지는 월별 확인조사를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외 11개 복지사업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복지서비스 부적정 수급 방지 및 복지재정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월별확인조사는 국민기초수급자, 기초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장애인 연금 등 총 11개 복지급여 수급자 중 상시근로소득 대규모 변동자(건강보험·국민연금 근로소득 50% 이상 증감자), 연금급여 변동자, 취득

세 납부자 정보를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 받는다.

이후 통보된 공적자료를 근거로 복지급여수급자의 자격 변동 및 급여감소·증가 등의 변동이 사항이 반영된다. 이번 2017년 3월 월별 확인조사 대상은 107건 (60가구)으로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자격 탈락 및 급여 감소가구에 대한 소명 및 의견청취기간을 충분히 제공하여 해당 가구의 상황에 맞는 소명방법 등을 적극 안내한다.

또한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긴급지원 등) 및 민간지원 서비스연결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

이다. 이와 동시에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가구는 보장종지와 급여 환수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사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4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2017년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17년 상반기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부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초중고교육비지원, 타입의료급여(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총 13개 복지급여 수급자의 자격, 급여액 결정에 활용되는 전체 소득재산 정보를 갱신하여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및 급여액 변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 여기행이나 갈까?

### 옥정호 순환도로 드라이브길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전국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이 길은 수목산수화에서나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을 자아냅니다.

### 관촌 사선대

2천년전 네 신선과 네 선녀의 전설을 간직한 사선대는 조각공원 및 체육시설과, 청소년수련원, 인조잔디구장을 갖추고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 천담 구담마을

섬진강 강변과 산이 어우러져 한쪽의 수채화를 담아 낸 듯한 마을로 포장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 옥정호 붕어섬(외얏날)

호수 속에 있는 신비로운 섬! 사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봄과 가을에는 물안개로 풍경이 절정에 이릅니다.

**임실군**

# 남원시, 토양오염 주범 집중 수거

### 폐건전지·폐형광 등 쓰레기봉투로 교환 행사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토양오염의 주범인 폐건전지·폐형광등을 집중 수거하기로 했다.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은 종량제 봉투에 섞어 혼합 배출되면 수은, 망간 등의 성분 때문에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다.

하지만 분리배출 될 경우에는 재활용 처리 과정을 거쳐 철, 아연, 니켈 등의 금속자원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된다.

특히, 시는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를 위한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위해 폐건전지·쓰레기봉투 교환 행사를 실시하여 종량제 봉투에 섞어 혼합 배출되기 쉬운 폐건전지 회수를 독려하기로 했다.

폐건전지는 기존량의 폐건전지를 환경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수거해 오면 소정의 쓰레기봉투로 교환해준다.

교환기준은 폐건전지 10개 당 20리터 쓰레기봉투 1매, 폐건전지 15개 당 30리터 쓰레기봉투 1매, 폐건전지 20개 당 50리터 쓰레기봉투 1매이다.

한편 폐형광등은 환경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아파트, 광고사, 조명기기관련업체에 비치되어 있는 파란색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형광등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형광등을 깨뜨려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다량의 수은이 발생하여 시민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전용수거함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종열 환경과장은 시민 건강뿐 아니라 환경까지 지킬 수 있는 분리 배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민 모두가 환경지킴이로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 지역 소식통

### 고창군, 문화재 재난대응 훈련 실시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최근 선운사, 참담암, 신재효 고택에서 고창소방서와 문화재 관계자와 안전경비원과 합동으로 '문화재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재난대응훈련 일환으로 추진된 이날 훈련은 문화재 화재 상황을 가상해 '문화재 화재 진압' 매뉴얼에 따라 진행됐다.

또한 상황전파와 자체 소방시설(옥외 소화전, 소화기)을 활용해 초동대처 능력을 배양하고 화재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현장대처훈련 중심으로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목조문화재 화재는 골든 타임이 5분인 만큼 초동대처가 중요하다"며 "화재 사전예방과 더불어 화재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문화재를 지켜나자"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임실군, 모정 신축·보수 사업 추진

임실군은 지역민의 휴식공간과 사랑방으로 활용될 모정 신축·보수 사업을 오는 6월까지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 1억5,000만 원을 투입해 지사면 계산리, 삼계면 후천리 등 5개소 모정을 신축하고 임실읍 이도리, 신평면 호안리 등 4개소는 보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산해는 1억원을 투입해 4개소의 모정을 신축하는 등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마을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며 "원활한 진행과 조속한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강천산 방향 안내판 일제 정비

순창군이 불철 강천산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방향안내판을 일제히 정비하는 등 관광객 편의증진에 나섰다.

군 체육공원사업소는 최근 공원 산책로와 등산로에 설치된 방향표지 및 안내판 54개소에 대해 안내가 미흡한 곳에는 추가 설치하고, 기존 낡고 노후 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곳은 새로 교체하는 작업을 끝냈다.

특히 이번 방향안내판은 친환경 목재로 제작해 등산로 주변환경과 잘 조화되도록 했으며 영문도 표시해 강천산을 찾는 외국관광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순창=이양원 기자

또한 구조번호, 방향, 등반거리,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 등산객에게 정확한 산행정보를 제공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구조번호를 통한 위치확인으로 신속한 구조도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한편 현재 강천산 군립공원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군비와 도비를 포함해 총 12억7,000만 원을 투자해 탐방시설의 확충, 노후 시설 및 위험 시설정비, 세족장 정비, 계곡탐방로 준설, 목교 설치 등 1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6월경 완료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고창군, 지방하천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공음면에 위치한 칠암천이 신규 국가예산 사업인 지방하천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칠암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은 고창군 공음면 칠암리, 장곡리 일원 칠암천 L=5.7km에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5년 동안 국비 95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 19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칠암천은 전라남도에서 영광군 측 제방 L=2.55km(우안)구간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홍수 발생 시에

대규모 침수 피해가 고창군에 집중될 우려가 있었다. 박우정 군수는 하천 범람과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올해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는 선정의 성과를 거뒀다.

군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L=2.55km 좌안을 포함 고창군지역 L=3.15km까지 총 L=5.7km에 대해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며 올해 사업비는 8억 원으로 시설계용역을 조기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